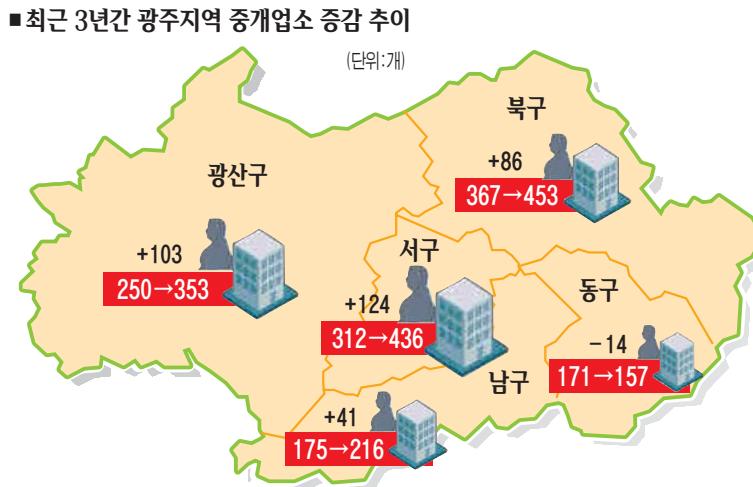


광주 동구 ↓ 부동산중개업 광산·서구 ↑

개발 붐타고 '돈 되는 지역' 쏠림현상 심화

수완·봉선 등 각광...상반기 200곳 이전·폐업



최근 3년간 광산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크게 늘어난 반면 동구는 전남도청 이전을 전후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신창·수완지구, 풍암·금호동, 봉선동 등 부동산 호재에 따라 소위 '돈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개업소의 지역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 상반기에만 무려 200여곳이 사무실을 옮기거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는 1천615곳에 달한다. 이는 3년 전인 2005년 상반기(1천275곳)에 비해 26.7%(340곳) 늘어난 것으로, 광산구와 서구 등 택지지구 개발이나 신규 분양이 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산구는 6월 말 현재 중개업소가 353곳으로, 3년 새 41.2%(103곳) 늘

었다. 최근 3년새 신창지구와 수완지구, 하남2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분양 및 입주가 이따금면서 중개업소가 집중된 것이다.

특히 광산구내에서도 지구별 개발호재에 따라 중개업소의 부침이 심하게 일고 있다. 광산경찰서 인근의 경우 선운지구 택지분양을 전후로 10여 곳이 넘는 중개업소가 활동했으나 최근에는 줄줄이 떠나고 있다.

이들 중개업소는 2~3년 전 신창지구나 나주 등 외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초부터 아등산 개발과 선운지구 등의 호재를 염두에 두고 사무실을 옮긴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구도 금호동과 화정동, 마륵동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집중됨에 따라 중개업소가 크게 늘었다.

현재 서구의 중개업소는 436개로 3년 전에 비해 39.8%(124개)나 증가했다. 서구의 경우 토지보단 아파트 단지내 매매나 전세를 전담으로 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남구는 봉선동을 중심으로 216개의 중개업소가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어 부동산 강세지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구도 동립동 등 453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3년 전보다 각각 86곳, 41곳 늘어난 것 있지만 광산구나 서구 등의 증가세에는 크게 빗미친다.

하지만 중개업소의 '쏠림' 현상은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과 맞물려 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대규모 택지지구

등 수익이 남는 곳에만 중개업소가 몰리면서 기존 업소까지 휴·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360여곳의 중개업소가 문을 열고 닫을 만큼 업계의 '지각변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에서 올 들어 6월까지 신규등록된 중개업소는 186곳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181곳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등 업계 전반이 불황을 타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 모하비 중국서 신차발표회

영화배우 장한위 1호차 전달...기자단 시승행사도

기아차는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하비(수출명 보래고)의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최근 중국 내동고 유흥트시에서 신차발표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전날 유흥트시 상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신차발표회에는 모하비 흥보대사인 중국의 인기 영화배우 장한위

를 비롯해 기아차 중국 현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차는 행사를 통해 '모하비 1호차'를 전달(사진)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뒤 중국 유력매체 기자단 60여명을 유흥트시 거근타라 초원으로 초청해 모하비를 타고 총 144km의 코스를 주행해 보는 시승행사를 열었다.

/이종태기자 jtlee@r

우수 조선기능인력 양성 박차

대한조선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창립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원장 김영근)은 31일 오전 11시 목포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창립 기념행사를 갖는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은 지난 달 20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2008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정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은 정부로부터 최장 6년간 훈련시설 및 장비지원금 등을 지원 받아 조선기능인력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김영근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장은 "36개 기관 중 세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기관이 선정됐다"며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보다 경쟁력 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전문교육원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은 지난 2007년 10월 개원한 이래 1기 기술연수생 148명과 2기 기술연수생 221명 등 모두 369명의 연수생들을 배출해 대한조선 협력회사에 취업시킨 바 있었다.

현재 3기 기술연수생 200여명이 입소해 응접 기능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내달 14일까지 4기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장은 "36개 기관 중 세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기관이 선정됐다"며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보다 경쟁력 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전문교육원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건설 등 지역 8개社 100위권에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대우건설 3년째 1위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업계의 종합 시공능력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자리에 올랐다. 또 광주·전남에서는 금호산업이 부동의 1위를 지킨 가운데 대주건설과 정우개발 등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업체의 종합 시공능력평가 결과 대우건설이 8조9천272억원으로 3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2위를 기록했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 3위, 4위로 지난 해와 순위를 맞바꿨다. 이어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금호산업은 일본계 건설사인 타이세이건설에 10위 자리를 내줬지만 1

조9천331억원의 평가액으로 광주·전남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금호산업은 또 전국 순위가 13위로 3계단 내려앉은 가운데 자회사인 대우건설이 업계 1위에 올라 체면치레를 했다.

광주·전남은 또 남양건설(36위), 금광기업(45위), 대우건설(52위), 정우개발(56위), 우미건설(59위), 호반건설(77위), 삼성건설(80위) 등 8개 업체가 100위권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주건설은 5천60억원의 평가액으로 지난해 61위에서 9계단 상승했으며, 정우개발도 28계단 상승했다.

인천 소재 (주)한양은 보성건설에 인수된 이후 두 회사의 토목·건축설적이 합쳐지면서 지난해 98위에서 48위로 50계단 뛰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베트남 금호고속

캄보디아 노선 개통

금호고속(대표 이원태)이 캄보디아 운수시장에 진출한다.

금호고속은 베트남 첫 합작사인 '금호 삼코 버스라인스'를 통해 8월 1일 베트남 호찌민과 캄보디아 프놈펜을 연결하는 국제노선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앞으로 운행차량과 헤수를 늘리는 등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라오스 운수시장에도 뛰어들어 베트남 호찌민~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을 운행할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간 정규노선을 운행중인 운수업체는 베트남 6개사, 캄보디아 3개사이며 외국인 투자 운수업체로는 처음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으로 이겨냅시다!!

국제기구 APEC

국제기구 APEC는 2008년 7월 29일~8월 2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국제기구 APEC는 2008년 7월 29일~8월 2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에 맨 뱅 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유한회사 동화실업

광주상공회회소